인싸의 시장 관찰 기록 — 2026-10-29 (목요일)

이 기록은 한국과 미국 시장의 주요 지표를 매일 모아, 그 '변화'를 포착하고 그 의미를 읽으려는 시도입니다. 경제 기사를 자주 보지 않는 분도 따라오실 수 있게, 용어는 처음 나올 때 풀어 쓰고 숫자에는 맥락을 붙였습니다. 수집 시각은 10월 29일 밤 9시 8분(한국 시간)입니다.

[오늘의 한 줄]

삼성전자가 분기 영업이익 107.4조원이라는 역대 최대 실적을 내놓고도, 추가 주주환원의 구체안을 내년 1월로 미루면서 실망 매물에 -4.13% 급락했고 코스피는 하루 만에 6,000선을 내줬습니다(5,937.66, -1.24%). 밤사이 미국에서는 연준이 금리를 동결했지만 2명이 '인상'에 반대표를 던졌고, 알파벳이 잉여현금흐름(버는 돈에서 쓰는 돈을 뺀 것) 적자를 기록하며 시간 외 거래에서 9~11% 급락했습니다.

[확인된 데이터]

■ 한국 시장 (10/29 정규장 마감, 오후 3시 30분)

왜 보는가: 하루 시장의 결론이자, 아래 모든 해석의 출발점입니다.
- 코스피 5,937.66 (-74.78, -1.24%). 6,017.22로 출발해 장중 6,100.11까지 올랐지만 삼성전자 실적 발표 뒤 하락 전환해 장중 5,800선까지 밀렸다가 낙폭을 일부 만회했습니다. 하루 만의 6,000선 반납입니다.
- 코스닥 753.23 (-18.05, -2.34%).
- 삼성전자 232,000원 (-4.13%, 장중 226,000원까지 하락). SK하이닉스 1,526,000원 (+2.62%, '150만 닉스' 회복). 삼성전기 1,293,000원 (-1.00%).
- 삼성전자 3분기 확정 실적(공시): 매출 195.2조원(+126.9%), 영업이익 107.4조원(+783.1%). 글로벌 테크 기업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 100조원을 넘겼고, 반도체(DS) 부문만 영업이익 106.5조원(이익률 72%)입니다. HBM4 판매 확대와 서버 SSD 수요가 이끌었습니다. 3분기 배당 30조원은 확정됐지만, 나머지 55조~75조원의 추가 환원 구체안은 2027년 1월 말 이사회로 미뤄 '눈높이 미달'로 평가됐습니다(대신증권).
- 전력기기 3종: HD현대일렉트릭 440,500원 (-4.76%), 효성중공업 1,911,000원 (-4.35%), LS일렉트릭 158,400원 (-3.77%).
- LG에너지솔루션은 대주주 LG화학의 지분 매각 결정 소식에 -8.6% 급락했습니다.
출처: 연합뉴스(종합2보) 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61029046852008, 뉴데일리 https://biz.newdaily.co.kr/site/data/html/2026/10/29/2026102900310.html, CNBC 삼성 실적 https://www.cnbc.com/2026/10/29/samsung-electronics-third-quarter-earnings.html

■ 오늘 누가 사고팔았나 (한국거래소 오후 3시 35분 집계)

왜 보는가: 실적발 변동일에 누가 어디로 움직였는지가 다음 흐름의 단서입니다.
- 코스피: 외국인 +655억원(3거래일 연속 순매수), 개인 +343억원, 기관 -4,447억원(연기금등 -1,252억원), 기타법인 +3,383억원.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우를 각각 1,382억원, 2,120억원 팔고 SK하이닉스를 4,482억원 사들이며 반도체 안에서 갈아탔습니다.
- 코스닥: 외국인 -1,308억원, 기관 -759억원, 개인 +2,173억원, 기타법인 -110억원.
- 누적(9/23부터 23거래일, 네이버 종가 기준 자체 집계, 근사치): 외국인 순매도 누적은 코스피 약 27.0조원, 코스닥 약 1.09조원입니다.
- ※ 일부 마감 기사의 수급 수치(외국인 -3,077억원 등)는 집계 시점 차이로 위 표와 다릅니다.
출처: 연합뉴스 투자자별 매매동향 표(15:36) 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61029153000008

■ 미국 시장 (10/28 수요일 마감) + 마감 뒤 빅테크 실적

왜 보는가: 어젯밤 미국의 금리 결정과 빅테크 실적이 오늘 한국 장과 내일 흐름의 배경입니다.
- FOMC(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 회의): 기준금리 3.75~4.00% 동결, 표결은 10대 2. 주목할 점은 반대 2표가 '0.25%p 인상'을 원했다는 것입니다. 성명은 "물가가 여전히 높다"고 밝혔고, 시장은 다음 회의의 추가 인상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(CNBC). 워시 연준 의장은 물가가 목표(2%)를 거의 6년째 웃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
- 마감 지수: 나스닥 26,549.85 (+0.27%), S&P500 7,743.98 (+0.28%), 다우 52,475.10 (+0.19%). 반도체지수(SOX) 11,684.00 (+1.75%)로 나흘째 상승했습니다.
- 개별 종목: 오라클 144.54달러 (+10.73%), 코어위브 63.93달러 (+7.32%), 블루아울 9.67달러 (+3.87%) 등 '빌려 쓰는 쪽'이 크게 반등했습니다. 마이크론 983.23달러 (+5.86%), 샌디스크 1,404.77달러 (+7.66%), 엔비디아 215.38달러 (-1.17%), 팔란티어 196.81달러 (-0.97%), 아이온큐 32.43달러 (-1.58%), 아마존 254.60달러 (+0.59%), 마이크로소프트 531.01달러 (-0.06%), 구글(알파벳) 324.89달러 (+1.34%), 메타 612.49달러 (-1.24%), GE버노바 878.03달러 (-1.90%).
- 마감 뒤 실적(오늘의 핵심 사건): 마이크로소프트는 매출 922.8억 달러, 주당순익 4.89달러로 예상을 웃돌았고(Azure 클라우드 +48%, 잉여현금흐름 흑자) 시간 외 +2~5% 올랐습니다. 반면 알파벳은 매출 1,275.8억 달러, 조정 주당순익 2.67달러로 약 4년 만에 예상을 밑돌았고, 3분기 설비투자 513.6억 달러를 쏟으며 잉여현금흐름이 90.7억 달러 적자로 돌아섰습니다. 장기차입금은 1년 새 약 5.8배(1,251억 달러)로 불었고, 2027년 설비투자는 3,000억 달러를 넘길 것이라 예고했습니다. 주가는 시간 외 -9~11%.
출처: 연준 성명 https://www.federalreserve.gov/newsevents/pressreleases/monetary20261028a.htm, CNBC 금리 결정 https://www.cnbc.com/2026/10/28/fed-interest-rate-decision-october-2026.html,

CNBC 알파벳 실적 https://www.cnbc.com/2026/10/28/alphabet-googl-earnings-q3-2026.html, CNBC 시간 외 동향 https://www.cnbc.com/2026/10/28/stocks-making-the-biggest-moves-after-hours-googl-msft-cmg-now.html

■ 채권·환율·원자재 - 금리는 오르고 원유는 평화 기대에 내립니다

왜 보는가: 주식과 다른 자산들이 같은 이야기를 하는지 교차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.
- 미 국채(10/28): 10년물 5.05%로 전날보다 0.06%p 올라 5% 선을 다시 넘었습니다(FOMC 뒤 금리 상승). 20년물 5.41%, 30년물 5.37%. 새 장기물 입찰은 없었고 10/28 2년물 변동금리채 재입찰(응찰배수 3.05)만 있었습니다.
- 원화: 서울 외환시장 마감 1,336.8원 (-0.9원). 연준 동결에 달러 상승 압력이 조금 빠졌다는 평가입니다(뉴시스). (Yahoo 일봉 기준 저녁 값은 1,338.0원.)
- 원유: 미국 부통령이 이란 국가안보회의 의장과 접촉해 평화 협상 재개를 시도했다는 보도(WSJ)에 공급 차질 우려가 식으며 브렌트유 113.32달러 (-1.73%), WTI 원유 100.66달러 (-2.06%)입니다 (CNBC 10/29, 한국 시간 오후 7시 48분경). 이후 야간에는 Yahoo 실시간 기준 브렌트 110.04달러(오후 8시 36분경)까지 추가 하락했습니다. 미국 주간 원유 재고는 190만 배럴 감소로 집계됐습니다.
- 미국 항공유·경유(EIA 주간 현물): 지난주(10/19~23) 확정값은 항공유 갤런당 4.55~4.69달러, 경유 5.12~5.28달러. 이번 주 들어(10/27 값) 항공유 4.444달러, 경유 4.687달러로 경유가 눈에 띄게 내렸습니다(일별 값이며 주간 평균은 아닙니다).
- 한국 국고채 3년 3.768% (15:49), 일본 국채 30년 3.916% (18:59).
- 선물(밤 9시 수집, 진행 중 세션 값): 나스닥100 선물 29,640.50 (알파벳 시간 외 급락이 반영되는 구간), 니케이 선물 64,710, 금 온스당 4,030.60달러.
출처: 뉴시스 환율 https://www.newsis.com/view/NISX20261029_0003846898, CNBC 원유 https://www.cnbc.com/2026/10/29/oil-price-today-wti-brent.html, 미 재무부 일일 금리(home.treasury.gov), TreasuryDirect, EIA, 네이버증권, Yahoo Finance

■ AI 가격 신호 3종 (10/28 미국 마감 기준)

왜 보는가: 'AI 투자 열기가 식고 있는가'를 뉴스가 아니라 가격으로 확인하기 위해, 세 갈래로 나눠 봅니다.
1. 반도체 대 시장 전체의 괴리: 최근 20거래일 반도체지수(SOX) -7.48%, 나스닥 -1.16%. 괴리 -6.32%p로 지난주 -10.8%p에서 나흘째 좁혀지는 중입니다. [계산: Yahoo 일별 종가 기준]
2. 빅4 대 취약 사업자: 빅4 평균 -13.30% (MS -2.3%, 구글 -19.3%, 아마존 -10.4%, 메타 -21.2%), 취약 3사 평균 -39.68% (오라클

-41.8%, 코어위브 -53.7%, 블루아울 -23.6%). 취약 쪽이 크게 반등했습니다. 단, 알파벳의 시간 외 -9~11%는 아래 종가에 아직 반영되지 않아 내일 빅4 평균이 다시 나빠질 수 있습니다. [계산]
3. 나스닥 고점 대비 낙폭: 현재 26,549.85로, 52주 종가 고점(10/6, 27,599.79)보다 -3.80%입니다. [계산]

[판단]

- 어제 '한 끝 모자랐다'고 적은 완화 조건의 한쪽(외국인 3거래일 연속 순매수)은 오늘 채워졌습니다. 하지만 다른 한쪽(괴리 -5%p 안)은 -6.32%p로 아직 밖에 있고, 같은 날 밤사이 새 변수 둘이 들어왔습니다. 하나는 연준의 '매파적 동결'(동결이지만 반대 2표가 인상 주장, 10년물 금리 5.05% 돌파), 다른 하나는 알파벳의 잉여현금흐름 적자와 시간 외 급락입니다.
- 알파벳 사건은 이 기록의 신호 2번이 추적하는 바로 그 문제, 즉 'AI 인프라를 버는 돈이 아니라 빌리는 돈으로 짓기 시작했는가'의 첫 대형 확인 사례입니다. 다만 같은 날 마이크로소프트는 Azure +48% 성장에 현금흐름 흑자를 냈으므로, 'AI 지출 전체의 붕괴'보다는 '주체별 차별화의 시작'으로 읽는 편이 지금 데이터에 더 맞습니다.
- 국내는 삼성전자가 보여주듯 '실적은 좋은데 시장의 눈높이가 더 높은' 구간입니다. 완화 조건의 절반이 채워졌지만 새 변수가 같은 날 들어왔으므로 현재 위치는 '위험 회피'를 유지합니다. 내일 밤 미국 시장이 알파벳발 조정을 어떻게 소화하는지가 다음 확인 지점입니다.
- 이 판단이 바뀌는 조건: 괴리가 -5%p 안으로 들어오고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지면 '중립'으로 완화하겠습니다. 반대로 나스닥이 52주 고점 대비 -10%에 진입하거나 빅4 평균 낙폭이 -20%를 넘으면 강화하고, 브렌트유가 120달러 위에 안착하면 물가 충격 경로로 강화하겠습니다.
- 이 내용은 참고 의견이며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. 개별 종목의 매매 지시도 아닙니다.

[복기]

만기가 온 지난 판단을 실제 값과 대조합니다.
- 10/22 판단: "코스피 종가가 5,533.77 아래일 것" (T+5, 10/29 검증) → 실제 종가 5,937.66. 빗나감.
- 10/28 판단: "코스피 종가가 6,012.44 아래일 것" (T+1, 10/29 검증) → 실제 종가 5,937.66. 적중.
- 해석: 급등 다음 날의 조정은 맞았지만, 그 직전의 이틀 연속 급등은 놓쳤습니다. '하루 뒤 방향 맞히기'는 여전히 동전 던지기에 가깝다는 것이 누적되는 관찰입니다. 적중이 판단의 질 전체를 증명하지 않으며, 같은 흐름 안의 연속 결과는 독립적인 검증이 아니라는 한계를 함께 둡니다.
- 오늘의 새 판단 기록: "코스피 종가가 5,937.66 아래일 것" - T+1(10/30, 금)과 T+5(11/5, 수)에 각각 검증합니다.

[AI 위험 v1]

AI 투자 열기의 균열을 미리 잡기 위해 정해 둔 다섯 가지 조건입니다.
- A. AI 기업의 자금조달 실패·철회 (최근 30일 2건 이상): 미확인 - 실패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고, 오히려 브로드컴의 앤트로픽향 AI 인프라 금융조달

성사가 보도됐습니다(반대 방향의 소식). 다만 알파벳의 장기차입금 급증(1년 새 약 5.8배)은 앞으로 주시할 지점입니다.
- B. AI 인프라 금융 프로젝트의 불가항력(force majeure) 통보 또는 지급 유예: 미충족(기간 만료) - 9/24 Project Jupiter 사건의 30일 유효 기간이 지났고, 새로운 사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.
- C. 사모대출 운용 3사(APO·KKR·BX) 중 2사 이상이 6개월 최고가 대비 -20% 이하: 충족 - APO -21.0%, BX -21.6%. KKR은 -19.3%로 -20%선 위로 올라왔습니다. (10/28 종가) [계산]
- D. 엔비디아 또는 삼성·SK의 HBM(고대역폭 메모리, AI 칩에 붙는 고성능 메모리) 실적 전망 하향: 미확인 - 하향 공시가 없습니다. 삼성은 HBM4 판매를 대폭 늘렸고 SK하이닉스는 2029년까지 사실상 완판 전망을 유지합니다(반대 방향의 소식).
- E. 전력 인프라 4종(GEV·HD현대일렉트릭·효성중공업·LS일렉트릭) 중 2종 이상이 6개월 최고가 대비 -30% 이하: 충족 - HD현대일렉트릭 -69.0%, 효성중공업 -58.5%, LS일렉트릭 -50.3%, GE버노바 -25.3%. 4종 중 3종 충족입니다. [계산]
- 종합: 충족 조건은 C·E 2개('3단계' 해당). A·D가 미확인이라 확정 단계는 유보합니다(가능 범위 3~5단계). 알파벳의 시간 외 급락은 내일 종가부터 C·E 계산과 신호 2번에 반영됩니다.
- 이 표의 임계값은 미리 정해 둔 편집 기준이며, 통계적으로 검증된 예측치가 아닙니다. 참고 의견이며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.
(끝)